

## 제41주년 경주의 날 축하 메시지

‘경주의 날’ 마흔한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복과 더불어 창설된 우리 경찰은 지난 59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남부럽지 않은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가정을 돌볼 겨를도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지금도 경찰 발전과 나라 걱정에 여념이 없으신 경우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랑스런 후배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서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찰이 얼마나 힘든 여건에서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체계도 더욱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서 경찰의 권위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찰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경찰의 오랜 숙

원인 수사권 조정이 실현되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65만여 경우회원 여러분께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